



예거 르쿨트르의 새로운 타임피스,

리베르소 트리뷰트 노난티엠

하이 컴플리케이션 워치메이킹의 재해석

90 년 전 예거 르쿨트르는 폴로 선수들을 위해 경기 중 깨지기 쉬운 시계 글래스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적인 해결책으로 리베르소를 개발했습니다. 이 모델은 회전식 케이스와 독특한 아르데코 라인으로 20 세기 디자인의 클래식이 되었습니다. 그랑 메종은 곧 리베르소의 새로운 변형 모델들을 선보이기 시작했지만, 첫 60 년 동안 기계식 컴플리케이션은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리베르소는 단순히 시간을 확인하는 용도의 시계였습니다.

1991 년, 리베르소가 탄생한 지 60 년이 지난 후 예거 르쿨트르는 리베르소 수아상티엠(Reverso Soixantième)을 선보였습니다. 파워 리저브 및 날짜 디스플레이를 갖춘 이 제품은 컴플리케이션을 비롯하여 창을 통해 내부의 기계식 디테일을 확인할 수 있는 사파이어 크리스탈 케이스백이 적용된 최초의 리베르소였습니다. 리베르소의 케이스와 무브먼트는 처음부터 컴플리케이션을 위해 디자인되지는 않았지만, 수아상티엠 모델을 통해 탁월한 워치메이킹 컴플리케이션에 새로운 시각적 표현을 더한 일련의 작품들을 선보이며 잠재력을 드러냈습니다.

리베르소 출시 90 주년을 맞이한 2021 년, 예거 르쿨트르는 이러한 역사의 최신 에피소드라 할 수 있는 **리베르소 트리뷰트 노난티엠**을 선보입니다. 이 모델은 몇 가지 클래식 컴플리케이션의 결합을 통해 시각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재해석했습니다.



컴플리케이션 역사를 새롭게 써 내려가는 리베르소

1991년 수아상티엠의 출시는 퀴츠 위기 이후 정교한 위치메이킹의 부활과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하이 컴플리케이션 제작자로서의 유구한 역사를 지닌 예거 르쿨트르는 엔지니어와 디자이너에게 새로운 칼리버를 학습하고 개발할 수 있는 매우 풍부한 아카이브를 제공했습니다. 그렇지만 10년 이내에 위대한 클래식 컴플리케이션을 통합한 6개의 새로운 리베르소 모델을 만들겠다는 매뉴팩처의 목표는 원형 무브먼트와는 다른 구조의 직사각형 무브먼트에 관련된 특정 문제를 고려할 때 매우 야심 찬 것이었습니다.

수아상티엠 이후 1993년에는 매뉴팩처의 첫 번째 투르비옹 손목시계인 리베르소 투르비옹이 제작되었습니다. 1994년 예거 르쿨트르는 메종 최초의 소형화된 손목시계용 미닛 리피터와 세계 최초의 직사각형 미닛 리피터 무브먼트가 탑재된 리베르소 미닛 리피터를 출시했습니다. 1996년, 그랑 메종은 직사각형 프레임 내에 크로노그래프 카운터를 배치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뒷면에 복잡한 디스플레이를 갖춘 리베르소 크로노그래프 레트로그레이드를 선보였습니다. 2년 후에는 리베르소 지오그래픽과 밀레니엄, 리베르소 쿼텀 퍼페추얼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2001년, 예거 르쿨트르는 셉탕티엠(Septantième)과 함께 리베르소 역사의 또 다른 10년을 완성했습니다. 이 모델의 무브먼트인 칼리버 879는 당시 전례를 찾아볼 수 없었던 8일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했습니다. 리베르소가 탄생한 지 90년이 지난 지금, 그랑 메종은 컴플리케이션의 새로운 조합을 선보입니다.

리베르소 트리뷰트 노난티엠

노난티엠의 전면 다이얼은 세련미와 우아함을 자아냅니다. 시그니처 가드룬이 더해진 핑크 골드 케이스에는 아플리케 골드 인덱스와 도피네 핸즈가 돋보이는 선레이 브러싱 처리된 실버 컬러의 다이얼이 장착되었습니다. 다이얼 하단에는 스몰 세컨즈 카운터 옆의 원 안에 문페이스 디스플레이가 세팅되었습니다. 12시 아래에는 다이얼과 케이스의 직사각형 모양을 반영하는 핑크 골드 레이스 장식의 커다란 날짜 디스플레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면 다이얼의 디자인은 시계 뒤에 숨겨진 놀라운 면을 전혀 알 수 없는 클래식하고 세련된 매력이 특징이며, 케이스를 뒤집으면 가장 익숙한 위치메이킹 컴플리케이션이 완전히 새롭게 재해석된 모습의 시각적 표현이 돋보입니다. 인상적이고 매혹적인 이 광경은 이전에 리베르소에서 보았던 그 어떠한 것보다도 다릅니다.

솔리드 핑크 골드 케이스백에 8자 모양으로 배열된 각기 다른 크기의 표시창은 케이스 상단 및 하단 테두리에 장식된 직선형 가드룬과 조화를 이루는 가드룬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상단의 작은 표시창은 세미-점핑 디지털 아워를 표시합니다. 리베르소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이 컴플리케이션은 1930 년대에 매뉴팩처가 손목 시계용으로 개발한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떠올리게 합니다.

아래의 큰 표시창에는 메티에 라르 아틀리에®에서 선명한 블루 컬러로 래커 처리한 3/4 플레이트에 부분적으로 가려진 회전 디스크에서 시와 분이 표시되고, 눈부신 밤하늘을 표현하기 위한 작은 금색 별이 흩뿌려져 있습니다. 중앙의 작은 원 안에 장식된 황금빛 태양과 달이 수평선 위로 지나가며 낮과 밤을 나타냅니다. 수평선 아래의 반원에는 JL 로고가 선레이 패턴을 배경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잡한 리베르소 모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예거 르쿨트르 엔지니어들은 노난티엠을 위한 완전히 새로운 매뉴얼 와인딩 무브먼트인 칼리버 826 를 개발했습니다. 230 개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시계의 양면에 동일한 시간을 표시하는 이 모델은 42 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합니다.

리베르소 트리뷰트 노난티엠은 190 피스의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되며, 예거 르쿨트르 부티크에서만 만나볼 수 있습니다.



기술 사양

리베르소 트리뷰트 노난티엠

케이스 소재: 핑크 골드

케이스 크기: 49.4 x 29.9mm

두께: 11.72 mm

무브먼트: 매뉴얼 와인딩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826

기능:

전면 디스플레이 시, 분, 스몰 세컨즈. 대형 날짜. 문페이즈

후면 디스플레이: 디지털 세미-점핑 아워, 디스크의 분, 낮/밤 인디케이터

파워 리저브: 42 시간

방수: 30m

스트랩: 블랙 엘리게이터 가죽

제품 번호: Q711252J

리베르소 소개

1931년, 예거 르쿨트르는 20세기의 클래식 디자인이 된 타임피스인 리베르소를 출시했습니다. 격렬한 폴로 경기를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된 시계는 아르데코 라인과 독특한 회전 케이스의 디자인으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아이코닉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90년이 흐르는 동안 정체성을 고스란히 간직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을 선보인 리베르소는 50개 이상의 다양한 칼리버가 탑재되었으며, 메탈 소재의 빈 다이얼 뒷면은 에나멜링과 인그레이빙 또는 잼스톤으로 장식할 수 있어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캔버스가 되어 주었습니다. 오늘날, 탄생 90주년을 맞이하는 리베르소는 현대적인 스타일에 영감을 얻어 계속해서 새로운 모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